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17호 2004년 4월 30일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 벤처기업 M&A 본격 지원체제 구축

### 제10차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개최



정부는 29일 18개 부처 차관 및 벤처기업 대표가 참여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 산업자원부장관)」를 개최하여 지난해 마련한 벤처기업 M&A 활성화방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위원회 내에 「구조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벤처기업의 M&A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전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M&A 관련 정책의 전문적 검토,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주식교환 내용의 확인 및 검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벤처기업 합병시 피합병 벤처기업의 영업권(합병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및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M&A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 M&A 지원제도 도입으로 예상되는 불공정 M&A 등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평가기관에 의한 기업 가치 평가를 제도화하고,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주식교환 내용을 중기청이 확인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부당한 주식교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M&A 전문기관을 통한 개별기업의 M&A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IT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하고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을 통해 IT 전문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며,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진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전용 ABS 발행, 신규 벤처투자 확대('04년 8,700억원) 등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벤처지원센터(ASP센터, i-Park 등)를 통해 현지 마케팅 및 유통을 지원하고, 해외 벤처기업인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IT기업의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사업에 통신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IT제품 수요예보제를 도입하며,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차별 없이 허용하고, IT기업의 반도체부품에 대한 공동구매도 지원하기로 했다.

▶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042-481-4387)

## 공공기관, 중기 R&D에 6,043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방부 등 15개 공공기관(정부부처 9개, 정부투자기관 6개)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올해 소관 연구개발(R&D) 예산 중에서 6,043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지원실적인 5,822억원에 비해 221억원(3.8%)이 늘어난 것으로 공공기관의 기술혁신 지원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실적 및 계획”에 의하면 지난해 15개 공공기관은 총 R&D예산 4조968억원의 14.2%에 해당하는 5,822억원을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지원하여 당초 계획 5,649억원보다 17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21억원이 증가한 6,043억원(전체 R&D예산 4조3126억원의 14.0%)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지원사업” 규모는 473억원으로 전년도(206억원)에 비해 130% 증가했다.

또 중소기업청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대규모 수요기관이 개발된 제품의 구매를 보장해 주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국방부 외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새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기술개발과 사업화의 효율적 연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규모

R&D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정부부처(9개) 및 정부투자기관(6개) 등 15개 기관이 소관 R&D 예산 중 일정비율(권장비율 5%)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이 제도는 최근 기술개발의 필요성 증대와 각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비율 추세 등으로 볼 때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술지원국  
기술정책과  
(042-481-4433)

##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 대폭 확대

- '04년 15.1% 증가한 51조 6천억원 구매 -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98개 공공기관(정부부처·지자체 56개, 정부투자기관 등 42개)에서 51조5917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구매액 44조8360억원 보다 15.1% 증가한 규모이며, 특히 총 구매계획액의 62.9%인 32조4655억원을 상반기 중에 구매할 계획이어서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내수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 제도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에서는 그 동안 구매계획의

이행성 확보에 애로를 겪어 왔으나 금년 3월 22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의 이행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주목된다.

▶ 기업성장지원국  
판로지원과  
(042-481-4466)

## 대학 기술이전, 산학협력 선순환 모델로 부상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해소하고, 대학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기술이전지원제도가 산학협력의 중심제도로 부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19개 사립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기술이전센터」를 통해 지난해 중소기업에 이전된 기술은 2002년 102건에 비해 30.4% 증가한 133건이며, 이를 통해 대학이 올린 수입도 2002년 9억8천만원에 비해 무려 94.6% 증가한 19억1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신기술 3,400여건을 DB화하여 기술마케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기술이전센터」가 대학과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제이앤제이바

이오(대표 정호권)는 영남대학교로부터 버섯의 알코올 가수분해효소를 함유한 균사체 배양에 관한 기술을 이전받아 상품화하여 작년 한해 6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바 있다.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을 활용한 기술이전 실적도 이처럼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정착 단계에 진입한 것은 기술이전의 중요성에 대해 대학과 정부가 공감하면서 공동 노력한 결과로 분석되며,

과거에는 대학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교수 개인의 명이나 출원비용을 지원한 기업의 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지난 2000년부터 「기술이전센터」가 설치된 이후, 자체 규정을 보완하여 발명자 보상금을 대폭 상향(50%이상) 조정하는 등 교수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대학의 지적재산권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한 결과, 특허출원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되어 산업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재정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등 기술이전 중심의 산학협력 선순환 체계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학기술이전센터」를 활용하여 대학에서 개발된 우수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중소기업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술지원국  
기술개발과  
(042-481-4442)

## 974업체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중소기업청은 올해 1차로 1,540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업체를 선정·지원한데 이어 금번에 2차로 974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입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코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격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해 인증획득업무를 대행케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고 50%, 100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총 19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차에 걸쳐 3600여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인증획득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지원하며,

금번 2차 사업에는 1,397개 업체가 신청하여, 그중 974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선정업체의 인증수요를 보면, 총 56개 인증분야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으며, 특히 CE, QS9000, UL 인증이 전체의 60.1%인 742개 규격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업체들은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동사업 관리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인증획득을 완료하면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향후 3차(7월), 4차(10월)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번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업체 또는 신청을 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에는 향후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 기술지원국  
시험평가과  
(042-481-4457)

## (주)백산OPC 등 6개 업체 수출중소기업인상 수상

중소기업청이 수출중소기업의 사기 진작과 수출 촉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상”에 (주)백산OPC 등 6개 중소기업이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수출증가율, 신규수출, 수출실적 등에서 우수한 수출성과를 달성한 6개 업체로, 총 121개 신청업체를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주)다성마그네틱은 1987년 설립한 전기전자부품 전문생산업체로서 국내 최초로 TV용 소형 트랜스를 개발,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시장을 공략하여 지난해 18,838천불(전년대비 2,159% 증가)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주)피델릭스는 2000년 12월에 창업한 기업으로 2002년 WLL Phone의 독자 상용화 모델을 개발하여, 중국시장 진출에 성공해 지난해 15,120천불(전년대비 5,783% 증가)을 수출하였으며, 올해는 러시아, 북남미 등의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4천만불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이다.

(주)KTC텔레콤은 1992년 설립한 유무선전화기 생산업체로서 내수 및 위탁 수출에만 의존해 왔으나 2002년말 GSM 휴대폰을 자체개발한 것을 계기로 홍콩 등의 시장을 개척하여 지난해 12,627천불의 직수출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에는 현재 추진중인 중동지역의 수출계약이 성사될 경우 7000만불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성공업(주)는 회사 설립 이래 36년 동안 농업용기계·설비만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원적외선 순환건조 및 자동수분측정 시스템 등의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적합한 곡물건조기를 개발하여 인도네시아 등을 집중 공략하여 지난해 6,377천불(전년 대비 25,408% 증가)의 탁월한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주)백산OPC는 1984년 설립하여 다년간의 프린터용 드럼분야의 연구개발에 매진, 유기감광체(OPC)드럼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1998년부터 독일·영국 등 유럽시장 개척에

주력하여 자가브랜드로 생산량의 95%를 세계 60개국에 수출하여 지난해 35,332천불(전년대비 45% 증가)의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일본시장 점유율 1위(60%)를 기록하고 있다.

동남전자(주)은 1984년 설립 이래 오로지 전자부품용 트랜스 생산에만 전념해 왔으며, 전기전자기기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설계 및 생산체계를 갖추고, 중국시장을 개척하여 지난해 17,857천불(전년대비 77% 증가)의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수출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각종 정책자금 및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박람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에 우대 지원하는 등을 통해 핵심 수출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해외시장과  
(042-481-4465)

# 일자리 창출 역량 등 벤처기업 경영실태 조사

- 7,500여개사, 벤처기업 지원시책 기초자료 활용 -

중소기업청은 7,464개 전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전면적인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변화추이는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기업 인력수요, 경영상 애로사항과 정책지원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벤처기업 1사1인 채용운동 및 효과적인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70여개 항목에 달하는 벤처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실태조사표는 (사)한국벤처연구소에 의뢰하여 작성하였으며, 조사표에는 업종, 재무건전성, 성장성, 이익률, 고용규모, 수출액, 해외투자실적, 창업자의 특성 등 벤처기업의 일반적인 경영정보에 대한 내용과 함께, 청년 일

자리창출, 투명 윤리경영, 혁신클러스터·지역균형발전 관련 사항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실시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설문조사 참여업체는 기존 데이터의 확인만으로 응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응답기업의 편리성을 제고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7월 “한국의 벤처기업 현황” 책자로 발간해 각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386)